

국립국어원 2009-01-54

발간등록번호

11-1371028-000156-01

2009년 남북 언어 학술대회 논문집

담당 연구원: 김 선 철

재일교포의 민족어 교육과 언어 사용 양상

조 의 성
일본 동경외대

1. 머리말

1.1. 목적

본고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재일교포의 민족어 교육을 살펴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민족교육이 어떻게 이뤄져 왔으며, 지금의 민족어 교육이 어떤 상황인가에 관해 간단히 기술하기로 한다. 또 하나는 재일교포가 사용하는 민족어의 양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모어가 일본어인 재일교포가 구사는 민족어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 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일본어 속에 섞여 쓰이는 민족어 어휘에 관해서도 간단히 고찰해 보기로 한다.

1.2. 재일교포에 관한 개관

재일교포는 일본에 도향한 시기에 따라 ‘구 교포’(old comer)와 ‘신 교포’(new comer)로 나눌 수 있다. 쉽게 말하여 구 교포는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본으로 건너 온 사람과 그 후손들을 가리키며, 신 교포는 해방 후에 일본인과의 혼인 등으로 인해 일본에 살게 된 사람들을 가리킨다. 법적으로 따지면 구 교포는 1945년 9월 3일¹⁾ 이전부터 계속해서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 후손

1)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항복문서에 조인한 다음날이다.

들이며, 대부분의 경우 ‘특별영주 자격’²⁾이라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거주한다. 일본 법무성 입국관리국 통계에 의하면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재일교포는 약 60만 명 정도이며, 그중 구 교포는 약 4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구 교포와 신 교포는 생활 습관이나 언어생활 등의 측면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같은 차원에서 고찰하기는 어렵다. 재일교포의 민족교육은 구 교포가 반세기의 세월에 걸쳐 정비해온 것이며 거기서 사용되는 민족어의 화자는 구 교포이기 때문에 민족교육과 민족어 문제를 논의하려면 구 교포에 관한 논의를 해야 한다. 그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구 교포에 한정해서 언급하기로 한다³⁾.

현재, 재일교포의 본적지별 통계는 공표가 되어 있지 않지만, 1959년도 데이터에 의하면 <표 1>과 같다. 경남, 경북 합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등 출신자가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재일교포의 출신지별 인구 비율은 현재도 두드러진 변화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1> 재일교포의 본적지별 인구(1959년 법무성 ‘체류외국인 통계’⁴⁾)

	인구(명)	비율(%)		인구(명)	비율(%)
경상남도	231,352	38.08	충청북도	12,377	2.04
경상북도	153,636	25.29	경기도, 서울시	9,707	1.60
제주도	85,036	14.00	강원도	6,530	1.07
전라남도	62,132	10.23	기타(이북)	10,342	1.70
충청남도	14,017	2.31	불명	8,407	1.38
전라북도	13,997	2.30	총계	607,533	100.00

2. 민족교육의 역사

2.1. 해방 직후의 민족학교와 한신 교육투쟁

재일교포의 민족교육은 1945년 8월 15일의 조국해방 직후에 일본 각지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서당식의 ‘국어강습회’가 그 효시다. 국어학습 운동은 1946년에 들어 조선(재일본 조선인

2) 구 식민지 출신자(한반도 출신자와 대만 출신자)와 그 후손들에 대해 그 역사성을 감안하여 일반영주 자격과 달리 부여된 영주 자격을 ‘특별영주 자격’이라 한다.

3) 앞으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본고에서 ‘재일교포’, ‘교포’라 하면 구 교포를 지칭하기로 한다.

4) 모리타(1996:39)에서 다시 인용.

연맹)⁵⁾이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4월에는 초등학교, 10월에는 중등학교 등 ‘조선인학교’를 창설했다. 조련은 교육 방침을 세우면서 독자적인 학교를 인가 제도를 도입⁶⁾, 교과서도 독자적으로 작성해서 민족교육을 실시했다. 이러한 학교 형태는 일본정부가 관할하는 정규 학교⁷⁾가 아니었다.

냉전이 격화됨에 따라 GHQ(연합군 총사령부)⁸⁾는 좌익적인 조련이 관할하는 조선인학교를 ‘이적(利敵) 교육기관’으로 규정해 탄압 정책을 취했다. 교포의 민족교육에 대해 일본정부는 1948년 1월 24일에 ‘조선인 설립 학교의 취급에 대하여’라는 통달을 내려 (1) 교포 자녀를 일본인학교에 다니게 하며⁹⁾, (2) 교포가 학교를 설립할 때는 현(縣) 지사(知事)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3) 기존 미달의 민족학교를 제한, 폐쇄시키는 것이었다(제1차 폐쇄령).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교포들은 민족교육을 당연한 민주적 권리로 생각하여 조련은 ‘조선인교육 대책 위원회’를 조직해서 반대운동을 각지에서 벌였다. 특히 한신(오사카-고베) 지방에서 벌어진 반대운동은 아주 극렬했고 4월 26일에는 오사카에서 열린 교포 15000명 집회에 대해 일본 경찰이 발포하여 김태일 소년(당시 16세)이 경찰의 총탄에 쓰러졌다(한신 교육투쟁). 그리하여 5월 5일에 조련 조선인교육 대책 위원회와 일본 문부성은 민족교육의 자주성을 인정하는 합의를 교환해서 투쟁은 매듭이 지어졌다.

2.2. 제2차 학교 폐쇄령과 민족학교

일본정부는 1949년 9월에 조련을 강제해산시키고, 10월 13일에는 교포 자녀에 대한 교육을 공립학교에서 실시하며 인가받지 않는 조선인학교를 폐쇄한다는 각의(閣議) 결정을 했다(제2차 폐쇄령). 이때 문부성은 조선인학교 337군데 중 92군데를 조련의 직접 운영이라는 핑계로 즉시

5) 좌익 인사들이 중심으로 1945년 10월 15일에 결성한 최초의 재일교포 단체. 조련에 반대하는 우익 인사들은 1년 후인 1946년 10월 3일에 재일본 조선 거류민단(현재의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을 결성한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의 일본에서 좌익 운동은 민주적 운동, 진보적 운동의 대명사와 같은 것이었다. 그러한 시대적 배경이 있어, 조련은 대부분의 재일교포에 의해 지지되었으며, 민중적인 교포단체로서 존재했다.

6) 인가 받은 학교는 ‘조련 ○○ 초등학교’처럼 공통된 명칭을 사용했다.

7) 일본의 정규 학교는 일본 학교교육법 제1조에서 규정된 학교를 이른다. 조선인학교는 학교교육법의 규정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정부에서 보면 ‘학교’가 아니라 그저 ‘민간 교육 기관’에 불과한 셈이다.

8) 일본은 1945년 9월 2일 제2차 세계대전의 항복문서에 조인하면서 연합군의 점령 밑에 놓이게 되었다. 연합군에 의한 점령 시대에 일본은 형식적으로 정부를 유지하면서도 GHQ의 간접 통치를 받았다. 점령은 1952년 4월 28일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됨으로써 끝났다.

9) 재일교포는 해방 후에도 법적으로는 일본 국적이 유지되었고 교포가 일본 국적을 잃게 되는 것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일인 1952년 4월 28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1947년 5월에 외국인등록령을 발령하여 구 식민지 출신자(즉 조선인, 대만인)은 ‘당분간 외국인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했다. 이것 때문에 조선인과 대만인은 이중 기준이 적용되었다. 취급의 적용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고 자의적이었다. 즉 일본 정부의 사정에 맞게 어떤 때는 일본인으로 취급되고 어떤 때는 외국인으로 취급되었다.

폐쇄시키고, 나머지 245군데 학교에 대해 사립학교로 개편을 촉구했다. 245군데 학교 중 128군데는 개편에 응했으나 사립학교로 인가를 받은 학교는 불과 2군데였고¹⁰⁾ 남은 126군데는 심사 불합격으로 폐쇄되었다. 또 개편에 응하지 않은 나머지 117군데 학교는 모두 폐쇄되었다.

동경에서는 제2차 폐쇄령 후에 민족학교가 일본의 공립학교로 남는 길을 택했지만 ‘공립학교’라는 것은 바로 ‘일본인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뜻한다. 동경 교육 위원회는 교포에 대해 민족교과를 과외 수업으로 하고, 학급 담임교원을 일본인 교원으로 삼고, 교수 용어는 일본어를 사용하는 등 갖가지 요구를 하면서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학교를 폐쇄시킨다고 선고했다. 이와 같이 공립학교에서의 민족교육은 아주 제한적인 것이었다.

민족학교를 유지하지 못해 학교를 폐쇄한 곳에서는 그 대신 일본인학교 속에 ‘민족 학급’을 만들어 방과 후에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형태를 취했다¹¹⁾.

이와 같이 1940년대 말부터 1950년대 초에 걸쳐 민족교육은 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다음 표는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 초에 걸쳐 민족학교 수와 학생수, 교원수의 추이이다.

〈표 2〉 조선인학교의 수적 추이(林慶植 1989:322)

	소 학교			중 학교			고 등 학교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1947	541	46210	1250	7	2761	95	-	-	-
1948	561	56210	1196	7	2330	115	-	-	-
1949	288	32368	955	16	4555	165	3	364	50
1952	154	14144	327	17	2914	110	3	570	54

1952년, 일본은 연합국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했다. 이것으로 일본은 1945년 이래 계속되었던 연합국에 의한 점령이 끝나 정식으로 독립국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이에 맞춰 동경 교육 위원회는 1953년 10월 4일에 “1955년 3월 31일로 공립 조선인학교를 폐쇄한다”는 통고를 했다. 그 이유는 ‘외국인만을 수용하여 외국인을 위한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지극히 변칙적’이라 이와 같은 조선인학교의 운영은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1955년 4월부터 조선인학교는 각종학교¹²⁾로 인가를 받고 새로 출범하게 되었다. 1950년대 중반

10) 그 중 하나는 지금도 정규 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백두학원(건국학교)이다. 이에 대해서는 2.2.도 참조.

11) 민족 학급은 주로 한신 지방에 많았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다.

12) 일본 학교교육법에서는 ‘학교 교육에 유사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각종학교로 규정한다. 한국에서 말하는 ‘학원’류가 말하자면 각종학교에 해당한다. 각종학교는 정규 학교와 비교해서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다. 그 대신, 교과 과정 면에서 정규 학교는 일본정부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한편 각종학교는 어느 정도 자유롭

에는 이와 같이 많은 민족학교가 각종학교로서 인가를 받고 운영되게 되었다.

2.3. 총련 결성과 민족학교

1955년 5월에 재일본 조선인 총련합회(총련)이 결성되자 대부분의 민족학교는 총련 산하로 들어갔다¹³⁾. 총련은 조련의 민족교육 중시책을 승계하고 민족학교를 적극 지원했으며 1956년에는 조선대학교를 개설(2년제, 1958년에 4년제로 개편)하여 초등교육에서 고등교육까지 일관된 민족교육 기관을 마련했다. 총련 산하 학교는 1967년에 94군데 학생수 35589명으로, 큰 융성을 보였다.

그런데 1960년대쯤부터 북한이 주체사상을 내세우고 총련 산하 학교에서도 사상교육을 실시하게 되자, 그 교육 방침에 대해 교포들의 반발이 일어나 민족학교를 기피하는 부모가 많아졌다. 그 결과, 1981년에는 학생수는 22940명까지 줄어들었다(朴慶植 1989:398). 학생수의 감소 경향은 그 이후도 계속되었다고 추정된다. 이러한 추세에 총련은 교육의 개혁에도 착수했으며, 2003년도부터는 새 교과서를 편찬하여 사상교육적인 내용을 줄였다.

3. 민족학교의 현황과 민족어 교육

3.1. 민족학교의 현황

민족학교에는 남한계(민단계) 학교와 북한계(총련계) 학교가 있다¹⁴⁾. 북한계 학교는 총 68군데가 있다¹⁵⁾. 2.3.에서 보았듯이 1955년 이후에 총련의 산하로 들어간 학교들로, 기존의 거의 대부분의 민족학교가 북한계 학교에 속한다.

〈표 3〉 민족학교의 수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남한계	2	3	4	4	0
북한계	3	58	34	10	1

계 교과 과정을 짤 수 있다.

13) 총련 산하의 학교들은 일본 국내에서 흔히 ‘조선학교’라 불린다.

14) 일반적으로 남한계 학교는 ‘한국학교’, 북한계 학교는 ‘조선학교’라 불린다.

15) 북한계 학교의 수는 규슈 조선 중고급학교 홈페이지의 기술에 의거했다. 한 군데에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병설하는 곳도 있다.

남한계 학교는 총합 4군데이다. 그 중 3군데는 일본 학교교육법 제1조에서 규정된 정규 학교이며¹⁶⁾, 각종학교로 운영되는 학교는 동경 한국학교 한 군데뿐이다. 이와 같이 남한계 학교는 우선 양적으로 교포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아주 적다. 더군다나 1980년 이후,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일본에 체류하는 주재원이 많아지면서 주재원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로서의 역할이 더더욱 커지고 있다¹⁷⁾.

북한계 학교는 모두가 각종학교이다¹⁸⁾. 북한계 학교는 전성기에는 무려 150군데나 있었으나, 최근에는 학생수 감소와 아울러 학교의 폐쇄, 통합이 잦아 학교수가 줄고 있다. 북한계 학교의 학생수 감소는 위에서 보았듯이 사상 교육 등 재일교포의 실정에 맞지 않는 교육 때문이라 추정되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 총련은 교포의 실정에 맞는 교육을 강구해서 2003년도부터는 새 교과서를 도입했다.

민족학교는 남한계도 북한계도 일본인 학교와 동일한 학교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즉 초등교육(초등학교) 6년, 중등교육(중학교) 3년, 후기 중등교육(고등학교) 3년이며, 북한계 학교는 고등교육(대학교) 4년과 후기 고등교육(대학원) 5년(석사 2년, 박사3년)이 있다.

민족학교에 다니는 교포 자녀의 비율에 관해 최근의 통계를 찾지 못했다. 吳滿(1993:185)에는 주일대사관 장학관실 발행 ‘교포교육개요’(1968년도)에 의거한 자료를 제시했는데 이에 따르면 남한계 학교는 3,784명(2.9%), 북한계 학교는 34,338명(19.2%), 일본인 학교는 134,858명(77.9%)으로 되어 있다. 1968년의 수치가 이 정도이니 현재 일본인 학교에 다니는 교포 자녀는 더욱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3.2. 남한계 학교

남한계 학교는 정규 학교이냐, 아니면 각종학교이냐에 따라 교육 방법에 차이가 날 수 있고 3군데 있는 정규 학교도 교과 내용은 한결같지가 않다. 여기서는 마에다(2005)를 참고하면서 정규

16) 3군데 학교는 다음과 같다.

- (1) 백두학원(건국소학교, 건국중학교, 건국고등학교) : 1946년 ‘건국 공업학교’, ‘건국 고등 여학교’로 개설, 1951년 정규 학교로 인가. 1976년까지는 남도 북도 아니라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켰으나 1977년 이후 남한계 학교로서 기치를 밝혔다.
- (2) 금강학원(금강소학교, 금강중학교, 금강고등학교) : 1946년 ‘니시나리(西成) 우리 학교’로 개설, 1949년 폐쇄령 후 1950년 금강소학교가 인가, 1961년 한국 문교부 인가, 1985년 정규 학교로 인가
- (3) 교토(京都) 국제 중학교, 고등학교 : 1947년 교토 조선 중학교로 개설, 1958 각종학교로 인가받으면서 교토 한국 학원으로 개편, 2004년 정규 학교로 인가, 개편
- 17) 초등부(초등학교) 학생 589명 중 일본 영주 자격을 가진 학생은 119명에 지나지 않는다.
- 18) 각종 학교는 정규 학교가 사용하는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계 학교에서는 각각 ‘초급학교, 중급학교, 고급학교, 대학교’라 부른다.

학교인 백두학원(건국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사례를 보기로 한다.

백두학원은 일본 문부과학성의 지도를 받는 정규 학교이다. 그러므로 교과 과목은 다른 일본 인학교와 마찬가지로 사립학교에서 인정되어 있는 독자적인 교과의 범위 안에서 한국 관련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마에다 2005:227). 교수 언어는 한국어 수업을 제외하면 일본어이며 교원은 일본의 교원면허를 가진다. 학생은 재일교포와 주재원 자녀가 있지만 일반 수업은 같은 반에서 수업을 하고 한국어 수업만 초급반, 중급반, 상급반(이 세 반은 교표용), 본국반(주재원 자녀용)으로 나눈다. 본국반 학생의 비율은 학년마다 다르나 학년 인원의 약 20-50% 정도다.

3.2.1. 수업

백두학원 소학교에서는 주당 한국어 수업이 4개가 있다¹⁹⁾. 동경 한국학교 7개, 북한계 학교 9에 비하면 수업 시간수가 상당히 적지만 이는 정규 수업 시간외에 민족 과목을 실시해야 할 정규 학교의 숙명이기도 하다. 한국어 수업에서 교수 언어는 100% 한국어이다. 교포반에서는 처음에 학생들이 당황해하지만 점차 익숙해진다고 한다. 중, 고등학교에서는 한국어 수업이 주당 3개 있다.

일반 과목들은 문부과학성이 작성한 학습지도 요령에 따라 검열(검정)을 받은 각종 교과서가 출판되어 있으나 한국어에 관해서는 학습지도 요령도 없고 정해진 교과서도 없기 때문에 교포반 수업에서는 교재 선정도 문제가 된다. 마에다(2005)에서는 1990년대 중반의 상황을 회고하면서 그 당시의 중학교 교재는 ‘한국 국제교육원이 만든 재외동포용 교재는 주로 초등학생 대상이며 시판 교과서는 어른 또는 여행자를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중학생용으로는 적당하지 않다. 결국 직접 만든 프린트물을 나누어 수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마에다 2005:239)²⁰⁾.

3.2.2. 교원

교원은 ‘현지교원’(일본인, 교포 교원)과 ‘파견교원’(3-5년 임기로 한국에서 파견되어 오는 교원)이 있고, 한국어 수업은 실질적으로 파견교원이 운영한다. 파견교원이 한국어 수업을 담당하는 가장 큰 이점은 본국에서 사용되는 ‘생생한’ 언어를 가르칠 수 있다는 점이다. 알기 어려운 뉘앙스 차이, 교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색한 표현’ 같은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도 본국에서 파견되어 온 모어화자 교원 덕분이라고 한다. 그 한편,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습득한 현지교원의 역학이 낮은 것은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 한국어 교육에서 비모어화자 교원과 모어화자 교원은 각자 나름대로 역할이 있을 터인데, ‘한국어는 한국인에게, 중국어는 중국인에

19) 소학교의 수업 한 개 45분짜리이다.

20) 최근에는 시판 교과서가 다양화되어서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다.

게 배우는 것이 가장 좋다는 모어화자 주의' 때문에 양쪽 교원의 협력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모양이다.

또 파견교원이 일종의 한국어의 '모범'이 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경향이 있어, 그 결과 현지교원은 자신의 한국어 실력이 모자란다고 느껴 학생 앞에서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생길 수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총련계 학교가 자신들의 언어 공간을 만들어 나간 것과 반대로, <규범>이 주어지고, <규범>에 얽매이고, 약간 경직된 언어환경이 되었다'(마에다 2005:259)고도 한다.

3.3. 북한계 학교

3.3.1. 개요

북한계 학교는 해방 직후 조련의 조선인학교의 승계한 학교이며,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재일교포의 민족교육의 거의 전부를 짊어져 온 학교이다. 그 교육은 교포 자녀들이 '장래에 일본에서 살아 나가기 위해 인간의 존엄과 깊이 연관되는 민족의 뿌리를 확실히 가지고 항상 조선사람으로서의 자각에 기초한 삶을 사는'(金德龍 1991:125) 것을 지향하는 것이다.

현재 민족교육을 받는 교포 자녀는 주로 일본에서 태어난 3세 이후의 세대이며, 모어도 일본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교육의 기축은 민족어 교육이다. '해외 거주자에게 모국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이나 아니라 각 개인 또는 민족 집단으로서의 재외 공민의 민족적인 심리, 공유의식의 핵심'(金德龍 1991:129)이기도 하고, 또 재일교포에게는 그것이 민족적 정체성 회복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북한계 학교는 모두가 각종학교이며 교육 방침과 교과서는 총련에서 독자적으로 작성하고 있다. 교과 과정은 1977년도, 1983년도, 1993년도, 2003년도의 네 번에 걸쳐 개편이 있었다. 이와 같은 교과 과정의 변천은 북한의 해외공민 교육으로서 귀국을 전제로 한 1970년대까지의 방침으로부터, 일본어를 모어로 하고 일본에 정착하는 세대에 맞춘 교육으로 점차 바뀌어 간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에 초점을 맞추면, 이전에는 문어적인 교육이 많았는데 반해 최근에는 구어적인 교육, 즉 실천적인 언어 구사 능력을 양성하는 교육 쪽으로 중점을 옮기고 있다²¹⁾. 이것은 나중

21) 申昌洙(2005:282)에 의하면 1983년 개정 초급학교 2학년 교과서에서는 격식적이고 문어적인 어미로 끝나는 문장이 대부분이었지만 1993년 개정 교과서에서는 28과 중 14과에 구어 표현이 채택되었다고 한다. 또 총련 홈페이지에 의하면 2003년 개정 교과서에서는 '입말교육을 강화하도록 하였다'고 하며 '생활을 반영한 기초적

에 언급하겠지만 북한계 학교에서의 교원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3.3.2. 수업

초급학교(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거의 100%가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은 필연적으로 제2언어 습득을 위한 교육이 된다. 초급학교에서는 1학년 때에 주당 9개, 2학년 때는 주당 8개 한국어 수업이 있는데, 이는 같은 학년의 일본어 수업이 주당 4개임에 비교해서 훨씬 많은 수업수이다. 북한계 학교에서는 일본어 수업을 제외한 모든 수업이 한국어로 실시하며 기타 모든 학교 생활의 장면에서 한국어가 사용된다. 그러한 환경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한국어학교에 처음 들어오는 어린이에게 집중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이다. 초급학교 1학년의 한국어 수업 풍경을 기술한 李月順(1998:113-115)을 아래에 인용한다.

초급학교 1학년 때 처음에 배운 것이 모음과 숫자다. 숫자는 교사가 그림이 그려 있는 종이를 칠판에 붙여 ‘이것은 몇 명입니까?’라고 일본어로 질문하고 민족학교 유치원으로부터 진학한 아이에게 대답시킨다.

그 다음에 교사는 일본어 어미만을 한국어로 바꿔서 질문한다. 일본어 ‘-desuka’를 한국어 ‘-입니까’로 바꿔서 질문하는 것이다. 학생들도 그것을 어느새 따라 쓰기 때문에 문법을 몰라도 괜찮았다. 숫자부터 시작해서 대답의 ‘예’도 금방 익숙해졌다. (중략) 한꺼번에 우리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우리말을 일본어 속에 섞었다. 우리말과 일본어는 문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외우기 쉬웠을 것이다.

한국어 수업의 비율은 중급학교(중학교)에서도 높고, 일본어 주당 4개에 비해 한국어는 5-6개이다.

3.3.3. 교원

일본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일간에는 국교가 없다. 따라서 북한계 학교라고 해도 북한과 인적 교류는 전혀 없고 교원은 모두가 교포이다. 교원은 같은 북한계 학교인 조선대학교에서 양성하며 교육학부, 문학역사학부 등을 졸업한 사람이 교단에 서는 경우가 많다. 교원들은 교육내용에 대한 연구 모임을 지역 단위로 가지며 ‘교육연구 대회’가 2년에 한 번씩 열린다(申昌洙 2005:280).

교원이 모두 교포라는 사실은 민족어 교육에 있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즉 교원이 본국

회화가 중심 -4가지 기능(듣기, 쓰기, 말하기, 읽기)을 종합적으로 높이는데 힘을 들였다’고 한다.

의 언어를 모르고 이른바 ‘재일한국어’라 불리는 교포식의 특수한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 언어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본국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정통성 있는 언어’로 간주한다면 본국과의 인적 교류가 불가결한데, 현재 북한계 학교에서는 물리적으로 그것을 이룩할 방도가 없는 실정이다.

4. 재일교포의 언어사용 양상

4.1. 재일교포의 한국어 사용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서 결론부터 말하면 많은 재일교포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장면이 적고, 일상생활에서는 일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남한계 민족학교 중 하나인 건국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부모·자식이 다 본국 태생인 경우와 부모·자식이 다 일본 태생인 경우에서 가정 내 사용언어에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고 한다(오고시 2005:32).

〈표 2〉 건국중학교·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언어사용

	부모·자식이 본국 태생(35명)	부모·자식이 일본 태생(84명)
한국어만 사용	38%	0%
한국어가 더 많음	35%	0%
절반 정도	24%	0%
일본어가 더 많음	3%	35%
일본어만 사용	0%	65%

민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언어사용 상황이 이 모양이니 일본인 학교에 다니는 가정에서 한국어 사용은 더욱 적어질 것은 추측하기에 어렵지 않다. 이처럼 재일교포 2세 이하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모어가 일본어이며 한국어는 많은 경우에 주로 민족학교를 통해 제2언어로 습득된다.

이와 같은 재일교포의 언어사용 양상을 보고 본고에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고찰을 하고자 한다. 하나는 민족학교에서 습득되는 한국어의 양상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민족학교는 설치수, 학생수 다 북한계 학교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재일교포 2세 이하 세대에서 제2언어로서 습득되면서 일정한 사회환경 속에서 상용되는 민족어는, 북한계 학교에서 사용되는 민족어이다. 여기서는 북한계 민족학교에서 습득되는 민족어를 임시적으로 ‘조선학교 한국어’라고 부르고 이 언

어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또 하나는 일본어를 사용하면서 그 속에 섞어 쓰는 한국어 어휘의 양상이다. 재일교포는 일상 생활에서 일본어를 사용하면서 어떤 어휘는 한국어 어휘를 사용할 경우가 있다. 그것은 이중언어 생활(bilingualism)이라기보다는 일본어로서 차용된 한국어 어휘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할지도 모른다. 그러한 한국어 기원 어휘에 대해 약간의 고찰을 하고자 한다.

4.2. 조선학교 한국어의 특징

이토(2006:40)에 의하면 조선학교 한국어는 (1) 화자의 모어가 일본어이며 한국어는 민족학교를 통해 얻어진 제2언어이고, (2) 민족학교에서 한국어로 교육을 실시하는 교사가 한반도에서 언어형성기를 보낸 모어화자가 아니라, 본국의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고 ‘학교형 bilingualism’의 재생산이 계속되어 왔으며, (3) 그 결과 이 언어는 일본어 화자가 한국어 학습 과정에서 보이는 오용과 많은 공통적 특징을 보여준다고 한다.

4.2.1. 문법적 특징

조선학교 한국어는 문법적인 현상에 관해 적지 않은 보고가 있다. 많은 경우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오용’이다. 아래는 특징적인 조사 사용 예이다.

- (1) a. 세시에(<세시가) 되면 거기서 기다리겠소.²²⁾
b. sanji-ni nar-eba sokode matu.
- (2) a. 선생님부터(<선생님한테서) 빌린 책
b. sensei-kara karita hon
- (3) a. 나는 아직 우리 말이(<말을) 잘 모릅니다.
b. watashi-wa mada kankokugo-ga yoku wakar-imasen.

(1)-(3)은 각각 일본어를 직역한 것으로 추정된다. (1)은 일본어 동사 nar-u(되다)가 한국어와 달리 조사 -ni(-에)를 용구하는 데서 온 직역 표현이다. (2)는 출발점을 나타내는 조사가 한국어에서는 ‘-부터, -에서, -에서부터, -로부터’ 등 몇 가지가 있는 데 반해 일본어는 -kara 한 가지 밖에 없어, -kara를 ‘부터’로 일률적으로 번역한 것이다. (3)은 일본어 동사 wakar-u(알다)가 -ga(-이/가)에 의해 대상어가 표시되는 것을 직역한 것이다.

22) 용례는 이토(1989), 宋實成(2007)에서 인용했다. 표기법, 띄어쓰기는 북한식을 따랐다.

용언에 관해서는 주고받기에 관련된 표현이나, 상 표현에 특징이 있다.

- (4) a. 벌써 서고있습니다(<서있습니다).
b. mou tat-te i-masu.
- (5) a. 책을 빌려 받고싶습니다(<책을 빌려주었으면 합니다).
b. hon-o kashite mora-itaidesu.
- (6) a. 먹게 시키다(<먹게 하다, 먹여주다)
b. tabe-saseru
- (7) a. 집에 돌아가보면(<보니) 손님이 와있었다.
b. ie-ni kaette mi-tara kyaku-ga kite ita.

일본어는 ‘-고 있다’와 ‘-어 있다’의 형태적 구별이 없이 둘다 -te i-ru로 표현되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고 있다’로 옮긴 것이 (4)이다. (5)는 일본어의 보조동사 mora-u(받다)를 직역한 결과,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문형이 된 예이다. (6)는 saseru(시키다)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7)는 일본어 어미 -tara가 ‘-으면’, ‘-으니’ 양쪽의 뜻을 나타내는데 이것을 ‘-으면’으로 일률적으로 옮긴 결과이다.

문장의 문말 형식을 보면, 주로 합쇼체와 해라체가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²³⁾. 사용되는 형식이 한정되어 있으면 화자의 섬세한 감정 등을 표현하기가 어렵다. 그러한 경우에는 일본어 어미를 한국어에 직접 붙여 뉘앙스를 구별하는 경우가 있다.

- (8) a. 싫다wa(<싫어).
b. iyada-wa.
- (9) a. 너 작다na(<작네).
b. omae chiisai-na.

나아가서는 일본어 동사를 본체로 하고, 뒤에 ‘-입니다’를 붙여서 활용어미를 만들고 섬세한 뉘앙스를 나타낼 때는 그 뒤에 다시 일본어 어미를 붙여 표현하는 혼합 형식까지 있을 수 있다.

- (10) a. ikanai입니까ne(<안가는지요). (필자에 의한 청취)
b. ikanai-desuka-ne.
안가다-입니까-(어미)

23) 북한계 초급학교 학생의 언어를 조사한 宋實成(2007)에 의하면 최근 아동들 사이에서는 해요체가 합쇼체 대신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4.2.2. 어휘적 특징

어휘는 일본어의 간섭으로 추정되는 연어 관계를 볼 수 있다.

- (11) a. 키가 높다/낮다(<크다/작다)
b. se-ga taka-i/hiku-i
- (12) a. 옷에 단추를 붙인다(<단다).
b. huku-ni botan-wo tsuke-ru.
- (13) a. 꿈을 보았다(<꾸었다).
b. yume-o mi-ta.
- (14) a. 손도 발도 만나간다(<아무것도 못한다).
b. te-mo ashi-mo de-nai.

(11)은 일본어 takai(높다), hikui(낮다)를 그대로 옮긴 것, (13)은 일본어 mi-ru(보다)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12)는 일본어 tuke-ru에 해당되는 한국어 어휘가 ‘달다, 붙이다, 묻히다, 바르다, 매기다’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중 가장 전형적인 ‘붙다’를 선택한 것이다. (14)는 일본어의 관용구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4.2.3. 음운적 특징

조선학교 한국어의 음운에 관해서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부정확하나 필자의 관찰에 의하면, /h/와 /k/가 구별되지 않고 하나의 음소가 되어 있다. 그 이외에도 경우에 따라 /r/와 /l/, /t/와 /d/도 구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소리/와 /서리/는 같은 발음이 되고, /구리/와 /그리/도 같은 발음이 될 수 있다.

자음에 관해서 보면, 어중, 어말에서 거센소리와 된소리의 구별이 모호해질 경우가 적지 않고, 어두에 있어서는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 모두가 구별이 모호해질 수 있다. 이것은 조선학교 한국어가 자음 음소를 유기와 무기, 성문폐쇄의 여부로 변별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어처럼 유성과 무성으로 변별하는 경우가 있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받침소리는 비음 /m, n, ŋ/ 세 가지의 변별성이 떨어지고, 폐쇄음 /b, d, g/ 세 가지의 변별성이 떨어진다. 일본어에는 음소로 구별되는 음절말 자음으로 비음인 발음(撥音)과 비음이 아닌(폐쇄음, 마찰음) 축음(促音)이 있는데²⁴⁾, 조선학교 한국어에서는 /m, n, ŋ/을 일본어 발음

24) ‘발음’은 흔히 /N/이라는 기호로 표시되는 음소다. 이 음소는 뒤에 오는 자음의 종류에 따라 [m, n, ŋ, N], 비모

(撥音)처럼 인식하고 /h, ɸ, ɸ/을 일본어 축음(促音)처럼 인식하는 모양이다²⁵⁾.

(15) [hasseŋ] 학생 cf. 일본어 /haQseN/ [hasseŋ]

(16) [tɕosoõsaraN] 조선사람 cf. 일본어 /cosoNsaraN/ [tɕosoõsaraN]

4.3. 일본어에서 혼용되는 한국어 기원 어휘

재일교포가 일본어 속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기원 어휘는 한정적이다. 그러나 그 한편으로 특정 어휘부류에서 한국어 기원 어휘가 자주 사용되는 것 같다. 金由美(2005)에서는 친족명칭, 제사 관련어휘, 식생활 관련어휘에서 한국어 기원 어휘의 보고가 있다. 예를 들어, 金由美(2005:129)에서 다룬 한국어 기원 친족명칭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7) aboji(아버지), omoni(어머니), hanme(<함매?; 할머니), harube(<할배; 할아버지), aje(<아제; 숙부), ajime(<아지매; 숙모), kunaboji(큰아버지), kunome(<큰어매; 큰어머니), iisanchon(외삼촌), imo(이모), komo(고모)

이러한 어휘들을 보면 남부 방언, 특히 경상도 방언으로 간주되는 어휘를 많이 찾을 수 있다. 이는 필시 재일교포가 경상도 출신자가 많은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어 기원 어휘는 명사뿐만 아니라 동사, 형용사와 같은 용언도 있다. 용언은 요리에 관련된 어휘가 많아 보인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용언의 활용체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국어 용언을 그대로 일본어에 섞어 쓸 수 없다. 그래서 용언 어형을 ‘-아/-어’형으로 바꾼 다음에 일본어 동사 suru(하다)를 붙여 일본어화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18) pokka-suru(볶다), koa-suru(고다), mara-suru(말다), chiji-suru(찌지다), pibi-suru(비비다), munchi-suru(<문쳐; 무치다) (필자의 친족 사이에서 사용되는 어휘)

형용사의 경우도 조어법은 마찬가지다. 즉 뒤에 동사 suru를 붙여 일본어화시킨다. 형용사, 동사 할 것 없이 suru를 붙이는 것은 한국어에서 형용사와 동사가 형태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형용사의 경우에는 da(-이다)를 뒤에 붙이는 사람도 있다.

음과 같은 이음으로 나타난다. ‘축음’은 흔히 /Q/라는 기호로 표시되는 음소다. 이 음소 역시 뒤에 오는 자음에 따라 [p, t, s, x, k]와 같은 이음으로 나타난다.

25) 사카이(2003)에서는 북한계 학교 출신자 두 명의 대화를 문자화한 자료에서 실제 발음에 의거해서 ‘실삼’(십삼), ‘가고 싶다’(<시다), ‘참’(<참), ‘얼다’(<없다)와 같이 표시하고 있다.

-
- (19) chirugii-suru/chirugii-da(질기다), shingubu-suru/shingubu-da(<싱겁어; 싱겁다)
shii-suru/shii-da(시다), (필자의 친족 사이에서 사용되는 어휘)

金由美(2005:135-136)에서는 또한 한국어 기원 어휘가 ‘부정적 의미의 단어에 많이 관찰되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어휘를 들고 있다²⁶⁾.

- (20) a. chesu-ga nai ‘재수가 없다’
b. nunchi-ga nai ‘눈치가 없다’
c. chicchibe-suru ‘찝찝하다’
d. monsara-suru. ‘못살다’(<몬살아)

그런데 金由美(2005:118)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러한 한국어 기원 어휘에 관해서는 ‘남아 있는 상황을 기술한 것은 아직 없’고, 연구 자체도 거의 없다. 이러한 어휘들은 세대 차이, 출신지 차이 등 몇 가지 요인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양상이 있다고 추측되지만, 그 전체 모습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5. 마무리

이상과 같이 민족교육에서의 민족어 교육과 재일교포의 한국어 사용 양상에 관해 간단히 살펴 보았다. 지금까지 민족교육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본국에 소개되는 일이 있었지만, 재일교포가 사용하는 한국어의 특징이나 일본어에 섞여 쓰는 한국어 기원 어휘에 관한 연구는 본국에 소개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일본 연구자와 재일교포 내부에서도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분야이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분야에 관해서도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6) 필자의 친족 사이에서도 ton(똥), ojun(오줌), pyonso(변소), chunshin nai(정신 없다), monnemi(<몬냄이; 못난이), paabochukku(바보축구)와 같은 어휘를 사용한다.

참고문헌

(1) 한국어 문헌

공봉식, 이영동(1997) “재일동포”, 서울: 문학관

김송이(1993) ‘재일자녀를 위한 총련의 민족교육 현장에서 —오사까 조선고급학교에서의 〈국어〉 수업과 〈세계문화〉 수업을 두고—’, 이중언어학회 “재일동포의 모국어 교육” 수록

金相賢(1969) “在日韓國人”, 서울: 檀谷學術研究院

金洪圭(1993)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에 대하여’, 이중언어학회 “재일동포의 모국어 교육” 수록

吳滿(1993) ‘일본의 공립소·중학교에서의 「민족학급」에 대하여’, “재일동포의 모국어 교육” 수록

이중언어학회(1988)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학지4, 서울: 집문당

이중언어학회(1993) “재일동포의 모국어 교육”, 이중언어학지10, 서울: 탑출판사

정병표(1993) ‘우리말 지도의 현황과 과제 —백두학원 건국학교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회 “재일동포의 모국어 교육” 수록

洪錫華(1993) ‘모국어 교육의 현장, 민족학교 —金剛學園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회 “재일동포의 모국어 교육” 수록

(2) 일본어 문헌

姜徹(1994) “在日朝鮮人の人權と日本の法律[第二版]”, 東京: 雄山閣

金徳龍(1991) ‘在日朝鮮人子女のバイリンガリズム’, Maher, J., 야시로[八代京子] 편저 “日本のバイリンガリズム”, 東京: 研究社

金由美(2005) ‘殘存韓國語語彙の様相—ある在日2・3世の場合—’, 사나다 외 편 “在日コリアンの言語相” 수록

마에다[前田眞彦](2005) ‘韓國系民族學校の事例—白頭學院建國幼・小・中・高等學校の場合—’, 사나다 외 편 “在日コリアンの言語相” 수록

모리타[森田芳夫](1996) “數字が語る在日韓國・朝鮮人の歴史”, 東京: 明石書店

朴慶植(1989) “解放後 在日朝鮮人運動史”, 東京: 三一書房

사나다[眞田信治] 외 편(2005) “在日コリアンの言語相”, 大阪: 和泉書院

사카이[酒井麻由美](2003) “定住コリアンの使用する朝鮮語について—朝鮮總聯系民族學校出身者の用いる朝鮮語の記述—”, 東京外國語大學 졸업논문

-
- 宋實成(2007) ‘朝鮮學校兒童らの朝鮮語使用—談話文字化資料から見た文法諸形式の使用状況について—’, 오고시 편 “在日コリアンの言語” 수록
- 申昌洙(2005) ‘民族教育の歴史と朝鮮學校における朝鮮語教育’, 사나다 외 편 “在日コリアンの言語相” 수록
- 오고시[生越直樹](2005) ‘在日コリアンの言語使用意識とその變化’, 사나다 외 편 “在日コリアンの言語相” 수록
- 오고시[生越直樹]편(2007) “在日コリアンの言語”, 移民コミュニティの言語の社會言語學的研究 研究成果報告書(2)
- 李月順(1998) ‘朝鮮學校における朝鮮語教育—バイリンガル教育の視點から’, 나카지마[中島智子] 편저 “多文化教育 多様性のための教育學”, 東京: 明石書店
- 이토[伊藤英人](1989) ‘在日朝鮮人によって使用される朝鮮語の研究の必要性について’, “日本の多言語使用についての實態調査”, 東京外國語大學 人文科學
- 이토[伊藤英人](2006) ‘現代における朝鮮半島以外のコリア語’, “世界のコリアン”, 東京: 勉外誠出版

(3) 인터넷

규슈 조선 중고급 학교 <http://www.jade.dti.ne.jp/~f-chouko/>

동경한국학교 <http://www.tokos.ed.jp/>

학교법인 금강학원 <http://www.kongogakuen.ed.jp/>

학교법인 백두학원 건국학교 <http://www.keonguk.ac.jp/>

[관련 자료]

〈자료 1〉 동경 한국학교 초등부 수업 시간 일람

	도덕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일본어	일본 사회 지리	영어	특별 활동	주당 수업 시간수
1학년	1	7	5	3	6		4		2	1		29
2학년	1	7	5	3	6		4		2	1		29
3학년	1	6	5	2	4	6		4		5	1	34
4학년	1	6	5	2	4	6		4		6	2	36
5학년	1	6	5	3	4	5	1	4	1	6	2	37
6학년	1	6	5	3	4	5	1	4	1	6	2	37

<http://www.tokos.ed.jp/elementary/sub4.html>을 다시 정리

〈자료 2〉 도쿄 조선 제1 초중급학교 초급부 수업 시간 일람

	사회	국어	조선 역사	조선 지리	산수	이과	일본어	보건 체육	음악	도화 공작	주당 수업 시간수
1학년		9			4		4	2	2	2	23
2학년		8			5		4	2	2	2	23
3학년	1	7			5	3	4	2	2	2	26
4학년	2	7			5	3	4	2	2	2	27
5학년	2	6		2	5	3	4	2	2	2	28
6학년	2	6	2		5	3	4	2	2	2	28

<http://www1.tcn-catv.ne.jp/t-kor1/information/karikyuramu.htm>

〈자료 3〉일본 소학교의 표준 수업시간 수(2008년도)

	일본어	사회	산수	이과	생활	음악	도화 공작	가정	체육	도덕	특별 활동	종합 학습	주당 수업 시간수
1학년	8		3.4		3	2	2		2.6	1	1		23
2학년	8		4.4		3	2	2		2.6	1	1		24
3학년	6.7	2	4.3	2		1.7	1.7		2.6	1	1	3	26
4학년	6.7	2.4	4.3	2.6		1.7	1.7		2.6	1	1	3	27
5학년	5.1	2.6	4.3	2.7		1.4	1.4	1.7	2.6	1	1	3.1	27
6학년	5	2.9	4.3	2.7		1.4	1.4	1.6	2.6	1	1	3.1	27

http://www.mext.go.jp/b_menu/houdou/11/04/990406o.htm

http://www.mext.go.jp/a_menu/shotou/new-cs/_icsFiles/afieldfile/2009/04/01/002.pdf

담당 연구원: 김 선 철(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2009년 남북 언어 학술대회 논문집

발행인	권 재 일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길 148(방화3동 827) 전화 02-2669-9714 전송 02-2669-9727
인쇄일	2009년 12월 28일
발행일	2009년 12월 28일
인 쇄	크리홍보주식회사
